

특권이 없어도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최고의 강서구를 만들어가는
유 영 강서구청장



‘특권이 없어도 되는 사회 만들기.’ 요즘처럼 작은 연결고리만 있어도 출세의 기회로 삼으려는 세태에서는 정말 생소한 이야기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 구민의 손으로 뽑은 유 영 강서구청장. 그는 강서구민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민선 구청장으로서 살아 온 1년 7개월여 동안의 구정업무에서 보여 주었다.

그가 매주 금요일에 갖는 ‘구민과의 만남의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구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것 외에도 행정·법의 테두리 내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구민과 공무원 모두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실 그런 만남이 필요했을 때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청 혹은 정부의 일에 대해 불만도 없고 공평한 처사이며 절차도 제대로 되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단체

장을 직접 만나 할 얘기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실제로 80여회에 걸쳐 이루어진 구민과의 만남은 초창기 150~250여명이 참석하던데 비해 이제는 오히려 많이 줄었다고 한다. 아마도 그사이의 대화를 통해 반영될 것은 반영되고, 이해해야 할 것, 지역발전을 위해 구민으로서 주체적으로 해야 할 일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던 때문일 것이다.

유 구청장은 취임 이후 ‘강서구민 제일주의’를 목표로 삼고 크고 작은 많은 일을

추진해 왔다. 강서구 중장기 발전기획단 구성, 구정모니터 운영, 강서까치뉴스 발간 등을 통해 구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정을 제도화하고, 구청앞 소공원 조성 및 대형 TV 설치, 뽕뽕콜 설치, 민원실 환경 개선 등 구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다.

그는 특히, 눈에 보이는 겉모습 보다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대상 무료건강진단, 저소득층 밀집지역 의료진 특별 파견, 생활보호 노인 가정간호 및 음료제공, 구민 체력측정 등을 활성화하는 한편, 지난 해부터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함께 구내 장애인 무료검사를 실시하는 등 1만 5천여 생보자와 5천3백여 장애인, 노인을 위한 건강증진 및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라는 개념은 이제 좀 더 광범위하게 이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환경적 측면, 문화적 측면,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 등이 골고루 갖추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복지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비 및 학자금 증액, 입원 진료비 지원, 취로사업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확대, 장애인·노인 종합복지관, 경로당, 어린이 집 건립, 구민종합체육센터 및 주민 체력단련실 등 체육 시설 확충, 보건소내 한방과 신설, 정신질환 전문병원 운영 등 의료시설 신설 및 유치, 민간 협조의 영화관 및 연극공연장 설립, 생활체육 및 여성교양대학 운영, 주민 합창단 결성 및 노래부르기 등 문화 행사개최, 지역전통 살리기 등 '97년도 바쁘게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복지 정책 중에서 유 영 구청장이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원 봉사단의 활동. 현재 2천 638명으로 구성된 자원 봉사단은 가사, 간병, 이·미용, 무료 장례, 장애인 수송, 대화 등 강서구의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그는 직원들에게도 꽤 인기있는 구청장이다. 직원과의 대화의 시간도 자주 마련해서 직원들의 입장을 경청하고 자신이 어떤 정책을 지시하기 보다는 직원 스스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도록 유도하며 민주적인 선택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항상 기본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는 일도 잊지 않는다.

『모든 행정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여유있고 너그러우며 누가 봐도 공평하고 정

당하다고 느껴지는 행정이 이루어지려면 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주어져야 하고, 또 공무원들은 원칙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중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간단한 체조와 매주 등산을 한다는 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기관인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일반 병의원에서는 받을 수 없는 협회만의 서비스를 차별화하여 강서구의 중추 건강증진기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 저소득주민 무료 건강진료 자원봉사와 보건소 검진주민들의 정밀진단 필요시 공동의 TOTAL 의로서비스시스템 구축도 추진되었으면 한다고.

끝으로 강서구민에게 한말씀 해달라고 하자 유 영 구청장은, 『여유를 갖고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자치단체는 예산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큰 변화는 없을지 모르지만, 53만 구민이 힘을 합쳐 나보다는 서로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면 보다 밝고 희망찬 강서 구현은 머지않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짧다면 짧은 기간동안 구



▲ 강서구민과의 만남의 시간



▲ 건협 서울지부 이홍량 사무국장(우측)과 함께



〈유 영 강서구청장 약력〉

- 서울대 총학생회장('68), 서울대 문리대 외교학과 졸('70)
- 미국 휴진스대 국제정치학석사, 영국 캠브리지대 경제학석사,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워튼스쿨 국제정치·경제학박사('73~'81)
-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안스팍외교연구원('75), 국제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81), 우르과이라운드 한국대표단 자문관('86), 경제사회정책연구원장('93), 통일시대연구소장('94)

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한 민선 구청장. 그러나 아직도 할 일이 많으며 강서구의 오늘과 내일을 구상하는 유 영 구청장이 있어서 강서구의 미래는 밝아 보였다. [7]